

므낫세의 죄: 열왕기하 21장 1-18절의 문헌비평적 읽기*

이상원(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성서의 많은 본문들이 한 저자에 의한 기록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본문의 흔적들이 주목되었고, 그에 따른 구약성서 본문들의 생성과 지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로부터 구약성서의 본문 주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19세기 이후 근대과학의 성과물들과 결합되면서 학문적 체계로서의 방법론들¹을 만들어냈다. 문헌비평(Literarkritik)은 이러한 방법론들 가운데 하나로써 지금의 본문 형태를 해석하는 역사적 주석의 필수적인 방법적 절차이다.

문헌비평은 본문의 '문학적 통합성(literarische Integrität)'을 검토하며

* 이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본문비평, 문헌비평, 편집비평, 양식비평, 전승비평 등.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본문은 하나의 틀 속에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 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헌비평은 본문의 통시적 통일성/비통일성(Einheitlichkeit/Uneinheitlichkeit)에 대해 묻는다. 문헌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말해서 본문 구성 요소들의 동시적인 내적 연관성(‘공시적 응집성[synchrone Kohärenz]’)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른다.

1. 본문의 가장 오래된 문서 형태는 무엇이며, 이후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있었는가?
2. 각 문헌적 층위의 역사적 자리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전까지 문헌비평은 본문에서 관찰되는, 공시적 응집성을 의심케 하는 불일치의 요소들²이 통시적으로 분리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당연하게 전제하는 뚜렷한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전적 문헌비평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통시적 비통일성의 표시로 간주되고,³ 곧바로 본문의 이전 단계를 재구성하는 기초로 사용되었다.⁴ 이러한 시도는 본문에 대한 공시적 고찰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시성-통시성’ 개념을 역사적 주석에서 처음 사용한

2 통사적 단절, 모순, 갈등, 중복(Dublette), 반복 등.

3 E. Blum, “Von Sinn und Nutzen der Kategorie „Synchronie“ in der Exegese”, W. Dietrich(ed.),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s* (OBS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6-30 = W. Oswald/K. Weingart(ed.), *Grundfragen der historischen Exegese. Methodologische, philologische und hermeneut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FAT 95; Tübingen: Mohr Siebeck, 2015. ㄱ), 67.

4 E. Blum, “Von der Notwendigkeit einer disziplinären Selbstverständigung in d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J.J. Krause/K. Weingart(ed.), *Exegetik des Alten Testaments. Bausteine für eine Theorie der Exegese* (FAT 2/127; Tübingen: Mohr Siebeck, 2021), 240.

리히터(W. Richter)는 역사적 주석에서 공시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우선 통시적 문헌비평의 단계를 거친 후에 형식(Form)에 대한 공시적 고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⁵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주어진 최종 형태의 본문을 분석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이후 영어권 학계에서 공시성이라는 용어가 주어진 최종 형태 본문의 해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⁶ 그러나 구약성서는 전승 본문들로 이루어졌고 독자/수신자를 전제하는 '전달 텍스트(Mitteilungstext)'라는 특징을 갖는다.⁷ 이 특징은 역사적 단계마다의 최종 본문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공시적 고찰은 문헌비평에서도 사용되어야 할 방법이며 이를 통해 각 역사적 단계의 본문이 어떠한 응집 구조를 갖는지를 묻고 답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문헌비평에서 통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과 문헌비평에서의 공시적/통시적 작업 절차를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공시적/통시적 접근을 통한 문헌비평 작업을 예시할 것이다. 열왕기하 21장 1-18절은 문헌적 통일성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공

5 W. Richter, *Exegese als Literaturwissenschaft. Entwurf einer alttestamentlichen Literaturtheorie und Method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20-21, 35-37, 72.

6 E. Blum, 윗글 (2015. 7), 57. 블룸(E. Blum)은 소쉬르(F. de Saussure)를 따라 '공시성'과 '통시성'을 대립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공시성/공시적'은 본문 전체를 구성하는 동시대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 개념이며 '공시적 해석/주석'은 본문 안에서의 동시적 요소들의 관계를 고찰하는 한에서 본문의 어떤 역사적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윗글, 55-61 참고).

구약성서 주석과 관련된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우택주, "구약성서해석을 위한 역사비평의 미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2004년 7월), 1-4를 참고하라. 그에 따르면 1970년대에 이르러 구약성서의 역사비평적 주석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주된 이유는 새로운 문학적 해석(a new literary interpretation)의 등장이다. 이는 구조주의, 형식주의, 신비평 이론이 성서해석에 도입되어 최종 형태의 본문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새로운 문학적평적 해석이다. 그 외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구약성서 연구에 유대인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 등이 시대적 상황으로 제시된다.

7 E. Blum, 윗글 (2015. 7), 58-63.

시적 접근을 배제한 이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의 결과는 이 본문이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오래된 층위의 본문에 남유다 멸망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 글은 본문에 대한 공식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이와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곧 열왕기하 21장 1-18절은 두 개의 문헌적 층위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오래된 본문에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2. 문헌비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헌비평의 단서들과 통시적 징후들

문헌비평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⁹

(1) 통사적(syntactic/syntaktisch) 단절

비문법적인 문장 연결, 대명사의 불명확한 지시 등을 말한다. 아모스 6장 1-7절에서 보기를 들 수 있다. 아모스 6장 1bβ절의 '이스라엘 집이 그들에게 온다'에서 '그들'과 2aβb절의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은냐?'에서 '너희'가 지시하는 대상이 불명확하고, 앞서 계속되는 분사구문과는 달리 6b절은 완료형의 동사 문장으로 되어 있다.¹⁰

8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을 참고하라.

9 O.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1971]), 54; M. Arneht, "Literarkritik der Bibel",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4. Aufl. (RGG⁴), Band 5 (Tübingen: Mohr Siebeck, 2002), 389-390; 지크 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07-111. 원제는 S. Kreuzer u.a., *Proseminar I. Altes Testament. Ein Arbeitsbuch* (Stuttgart: Kohlhammer, 2005); E. Blum, 윗글 (2021), 25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0 이상원, "아모스서에서의 전승과 해석: 아모스 5장 21-27절; 6장 1-7절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9권 1호 (2025년 2월), 6-10.

(2) 중복(Dublette)

동일한 단락 안에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홍수이야기(6-9장)에는 다양한 중복이 나타난다. 홍수의 예고(6:17; 7:4), 동물들의 수(6:19 이하; 7:2 이하), 홍수의 시작(7:10; 7:11), 비가 내린 기간(7:4; 7:24), 생물들의 죽음(7:21; 7:22) 등의 불일치는 본디 독립적인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 정보나 이야기의 반복 또는 다중 전승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내용이 더 큰 본문 단위 안에서 반복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대체로 서로 다른 강조점과 신학적 입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소명에 관한 두 개의 이야기(출 3:1-14; 6:2-12)를 비교할 수 있다.

(4) 용어상의 차이

한 인물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않거나, 반대로 구분이 필요한데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이다. 모세 장인의 서로 다른 이름(출 2:16, 18; 3:1)이 그 예이다.

(5) 모순(contradiction/Widerspruch)

한 이야기 안에 상반되는 진술이 나란히 있어 생기는 긴장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땅 정복과 관련된 상반된 진술(수 21:43-45의 완전 정복 / 수 13:1-7; 삿 2:20-23의 불완전 정복)¹¹, 사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스라엘의 태도(삿 2:17의 불순종 / 삿 2:18-19의 순종)를 그러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큰 규모의 텍스트 복합체(Textkomplex)에서도 발

11 E. Blum,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M. Vervenne/J. Lust(ed.),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Literature* (FS C.H.W. Brekelmans) (BETL 132;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81-212 = W. Oswald(ed.), *Textgestalt und Komposition. Exegetische Beiträge zu Tora und Vordere Propheten* (Tübingen: Mohr Siebeck, 2010), 251-255.

견되는데, 이를테면 이사야 40-66장은 기원전 8세기의 1-39장과 달리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신학 사상을 보여준다.

(6) 정보의 결핍

독자가 알아야 할 전제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가장 오래된 문헌적 층위의 본문을 읽는 독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무리 빨라야 기원전 711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아모스 6장 2절은 가장 오래된 본문(기원전 733-722년)의 독자인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¹²

(7) 문체의 단절

시제의 불연속적 전환, 시문에서 산문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구체적인 묘사에서 추상적인 묘사로의 전환, 간결한 서술에서 장황한 서술로의 전환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조가(암 6:1-7)에서 흐름을 방해하는 산문(2절)의 등장¹³, 아모스의 환상본문(암 7:1-3, 4-6, 7-9; 8:1-3) 사이에 있는 산문 형식의 아모스-아마사 이야기(7:10-17)¹⁴, 요시야의 제의 개혁 목록(왕하 23:4-15)에 이어지는 상황 묘사(왕하 23:16-20)¹⁵가 그 예들이다.

(8)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기 완결적인 단락

이야기 안에 삽입된 하나님 말씀이 그 경우이다. 그 예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이야기(창 15:7-21) 안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방

12 이상원, *읽글* (2025), 7-9.

13 *읽글*, 7.

14 이상원, “아모스서에서의 지진의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94집 (2024년 12월), 191(각주 41).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곧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보고문(암 9:1-4), 송영(5-6절), 심판과 회복의 말씀(7-10절), 구원 말씀(11-15절)으로 이루어진 아모스 9장의 최종 형태 본문에 대한 해석의 예로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102-128을 참고하라.

15 이상원, “신명기사가에게 요시야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174.

해하는 하나님 말씀(13-16절)을 들 수 있다.¹⁶

(9)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야기나 담론과 결합된 거시 구조적 표시들
거시적인 구조 안에서 이야기나 담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들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심’은 출애굽기 2장 23aβ-25절을 주변의 비제사장적(non-P) 맥락을 떠나 제사장 전승(P)의 6장 2-8절과 함께 거시적 구조 안에서 보게 한다.¹⁷ 또한 ‘아모리 땅의 신들’, ‘중 되었던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심’,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청종/거부’는 여호수아 24장을 신명기역사서의 문맥을 떠나 사사기 6장 7-10절과 연결하여 읽게 한다.¹⁸

언급한 예들은 위와 같은 본문의 현상들이 통시적 비통일성을 갖는 경우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통시적 징후로서의 이러한 현상들이 곧바로 통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현상들은 단지 징후일 뿐이지 표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로부터 통시적 통일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문 내의 긴장이나 모순 등으로 인한 응집성의 결여가 저자에게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문법적 생략이나 묵인될 수 있는 불일치로 인한 것이거나 때로는 오히려 저자의 본문 구성 전략의 하나로써 의도된 표현 방식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징후가 관찰되지 않지만 통시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후대의 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 언어, 문체에 맞추어 덧붙인 경우에는 언급된

16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377-380.

17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239-242.

18 E. Blum, *윗글* (2010), 262-274.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통시적 통일성/비통일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주석자가 고려하고 있는 본문 형성에 대한 모델이다.²⁰ 이를테면 사사기와 열왕기에는 ‘평가 본문’으로 일컬어지는 본문들이 있다. 사사기에서는 백성이 제의정화 규정(제1계명)에 의해 평가받고²¹, 열왕기에서는 왕과 백성이 제의정화 규정과 더불어 제의중앙화 규정(신 12장)에 의해 평가받는다.²²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평가 근거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평가 대상과 평가 근거의 차이를 통시적 분리의 근거로 삼고 평가 본문들을 여러 편집층으로 나누는 것이고,²³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평가 근거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구성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²⁴ 후자의 구성사 모델에서는 구성의 요소가 되는 다양한 전승에서 비롯되는 내용과 형식의 차이가 여러 역사적 단계의 문헌층으로의 분리 근거가 되지 않는다.²⁵

19 E. Blum, 윗글 (2015. 7), 67.

20 E. Blum, 윗글 (2021), 242.

21 사사기 2장 11-19절; 3장 7, 12절 등.

22 열왕기상 12장 26-32절; 14장 22-24절; 15장 11-14절; 열왕기하 17장 7-23절; 21장 2-16절 등.

23 R. G. Kratz, *Die Komposition der erzählend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rundwissen der Bibelkritik* (UTB 2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155-191; E. Aurelius, “Der Ursprung des ersten Gebots”,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100 (2003. 7), 1-4; K. Schmid, “Hatte Wellhausen Recht? Das Problem der literarhistorischen Anfänge des Deuteronomismus in den Königsbüchern”,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19-43 등.

24 E. Blum, “Das exilische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H.-J. Stipp(ed.),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ÖBS 39; Frankfurt a.M. u.a.: Peter Lang, 2011), 269-295(특히 283).

25 공시적 접근을 통하여 관찰된 비응집성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제사장

2) 문헌비평의 절차

문헌비평은 공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곧 본문의 응집성/비응집성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지만 통시적 분석과의 상호 보완적인 수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 문헌비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²⁶

- 1) 분석할 본문의 경계를 정한다. 본문의 범위는 히브리어 성서나 현대 번역 성서의 단락 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히브리어 성서의 단락 구분은 유대인 전통에서 독서 주기를 위해 구분된 것이고 장절 구분도 13-16세기에 도입된 것이다. 또한 현대 번역 성서들의 단락 구분은 동일하지 않다. 본문의 경계는 주석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선택한 본문이 내용과 형식에서 앞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2)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파악한다.
- 3) 본문의 통전성을 관찰하면서 눈에 띄는 특이 사항들(어휘, 문장 구조, 문체 등)을 기록한다. 관찰된 사항들을 위에 언급된 범주들

전승(P)을 기준으로 삼은 문헌층의 구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합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사장 전승의 정도는 아니지만 전기예언서 안에 있는 신명기사가의 흔적들도 문헌층 구분에서 기준이 되고 있다. 두 전승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데는 의미 있는 언어적 특징과 신학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각 전승에 통합된, 고유한 특징을 지닌 이야기의 문헌층을 구분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중요한 검토 도구로 각 본문의 공시적 응집성에 대한 검토가 잠정적으로 추가된다. 여기에는 본문의 화용론, 곧 기록 당시의 독자와의 의사소통 기능이나 넓은 문맥에서 본문이 갖는 역할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E. Blum, 윗글 [2021], 259 참고).

- 26 다음은 저자가 문헌비평 작업을 하면서 거치는 절차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다. 문헌비평의 일반적 절차에 대해서는 O.H. Steck, 윗글, 59-60;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윗글, 105-1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별히 5)~7)은 E. Blum, 윗글 (2021), 257-260을 참고하라.

에 따라 분류한다.

- 4) 관찰된 내용들을 평가한다. 한 지점에 여러 특이 사항이 나타나면 문헌비평적 이음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5) 분리된 부분 본문들의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한다. 부분 본문들의 연결점이 있는지,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분류된 공시적 비응집성의 흔적들(중복, 모순 등)이 통시적 비통일성의 징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한다. 여기서 좁은 맥락이나 넓은 맥락에서 다른 본문과의 암시적이나 명시적인 상호 관련성(참조, 지시 대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6) 본문의 가장 오래된 부분과 덧붙은 부분들을 재구성한다. 이때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본문과 같은 종류 또는 동일한 저자의 것으로 파악되는 본문들과 비교할 수 있다(이르테면, 사사기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 열왕기의 왕들에 관한 기록, 제사장 문서, 신명기역사서 등).
- 7) 재구성된 부분들의 각각의 통일성을 점검함으로써 결과물을 점검하고 각 단계를 분석한다. 덧붙은 부분들은 본문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각 단계의 본문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곧 의도된 독자/수신자와의 의사소통 기능을 점검한다.
- 8) 본문의 전승사를 서술하고 성장 단계들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한다.

4. 열왕기하 21장 1-18절의 문헌비평적 읽기²⁷

1) 단락 설정과 구조 분석

열왕기하 21장 1-18절은 열왕기에서 서술되는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에 관한 기록이다.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 관한 기록처럼 시작(21:1)과 끝맺음(21:17-18)을 알리는 표현들이 경계의 틀을 이루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다.²⁸ 그리하여 앞에 놓여 있는 아버지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왕하 18-20장)과 뒤따라 나오는 아들 아몬에 관한 본문(왕하 21:19-26)과 구분된다.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즉위한 때, 나이, 통치 기간, 어머니의 이름²⁹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여(21:1), 저자가 참고한 역사 자료, 므낫세의 죽음, 후계자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21:17-18). 이러한 틀 안에 므낫세에 대한 평가 본문(2-16절)이 있다. 이 평가 본문은 2절과 6b절에 있는 부정적 평가 형식에 따라 두 부분(2-6a, 6b-16절)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의 가능성은 문체와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6b절은 접속사

27 열왕기하 21장 1-18절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Den Ort, den JHWH erwählen wird..., sollt ihr aufsuchen(Dtn 12,5). Die Forderung der Kulteinheit i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Tübingen: Tübingen Universität Verlag, 2015), 80-94 쪽을 참고하여 다시 쓴 것이다. 열왕기하 21장 1-18절의 최종 본문에 대한 주석의 예는 정석규, “왕하 21장의 구조 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36집 (2010년 6월), 30-52를 참고하라.

28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에는 일정한 형식의 도입부와 종결부가 있다. 도입부는 왕의 즉위 시기, 나이, 통치 기간에 대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고, 종결부의 요소로는 저자가 사용한 역사 자료, 왕의 죽음, 후계자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왕상 14:21, 31; 15:1-2, 8; 9-10, 23-24; 25, 28-31; 33; 16:5-6 등). 왕의 즉위 시기는 같은 시대의 북왕국 또는 남왕국 왕의 연대에 맞추어 서술되는데, 이는 신명기사가의 독특한 연대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므낫세 기록의 도입부(1절)와 종결부(17-18절)는 왕들의 기록에 대한 신명기사가의 전형적인 틀을 따르고 있다.

29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유다 왕들의 기록에만 나온다(왕상 14:21; 15:2, 10; 22:42; 왕하 8:26 등).

없이 시작하는데, 접속사 없는 문장은 새로운 주제의 작은 단위를 이끌 수 있다.³⁰ 이러한 문장은 열왕기의 왕들에 관한 평가 본문에서 평가 근거들이 나열될 때 자주 나타난다(왕하 18: 4a, 5a, 6b, 7b, 8).

첫 번째 단락(2-6a절)은 가나안 땅 민족들의 가증한 짓을 모방한 므낫세에 대한 부정적 평가(2절)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3-6a절)으로 이루어져 있다. 3-6a절에서는 므낫세가 가나안 땅 민족들의 가증함을 모방한 행위들이 나열되는데, 이것들은 산당 제의(3a절), 우상숭배(3b-5절), 그 밖의 제의적 또는 마술적 범죄(6a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락(6b-16절)은 네 부분, 곧 강화된 부정적 평가(6b절),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7-9절), 심판예언(10-15절), 그 밖의 범죄(16절)로 나눌 수 있다. 6b절의 부정적 평가는 제의와 관련된 범죄(7-9절)와 사회적 범죄(16절)에 근거한다. 7-9절은 비난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시 세 부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므낫세가 행한 아세라 제의(7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경고를 이스라엘 전체가 따르지 않은 것(8-9a절), 므낫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한 것(9b절)으로 나눌 수 있다. 16절에서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므낫세의 죄를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심판예언(10-15절)은 도입부(10절), 죄 고발(11절), 죄 고발에서 심판선언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의 표현(12a절), 심판선언(12b-14절), 그 밖의 죄 고발(15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므낫세 본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30 C. Hardmeier, *Prophetie im Streit vor dem Untergang Judas. Erzählkommunikative Studien zur Entstehungssituation der Jesaja- und Jeremiaerzählungen in II Reg 18-20 und Jer 37-40* (BZAW 187; Berlin u.a.: Walter de Gruyter, 1990), 96.

- A. 도입부(1절): 즉위 연대, 나이, 통치 기간, 어머니 이름
- B. 평가 본문(2-16절)
- I. 첫 번째 평가(2-6a절)
1. 가나안의 가증함을 모방한 므낫세에 대한 부정적 평가(2절)
 2. 부정적 평가의 내용(3-6a절)
 - 3a 산당 재건축
 - 3b-5 우상숭배
 - 3b α 아합을 따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 세움
 - 3b $\beta\gamma$ -5 천체 숭배
 - 6 제의적 또는 마술적 범죄
- II. 두 번째 평가(6b-16절)
1. 강화된 부정적 평가(6b절)
 2. 강화된 부정적 평가의 내용(1)(7-9절)
 - 7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므낫세의 아세라 제의
 - 8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순종의 경고
 - 9a 경고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의 불순종
 - 9b 전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므낫세의 죄
 3. 심판예언(10-15절)
 - 10 도입부
 - 11 므낫세의 죄 고발(i)
 - 12a 심판선언으로 넘어가는 다리
 - 12b-14 심판선언
 - 15 므낫세의 죄 고발(ii)
 4. 강화된 부정적 평가의 내용(2)(16절)
 - 16a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므낫세의 죄
 - 16b 유다를 죄짓게 한 므낫세의 죄
- C. 종결부(17-18절): 역사 자료, 죽음, 후계자

2) 열왕기하 21장 2-16절의 문헌적 통일성

므낫세 평가 본문(2-16절)의 문헌적 통일성 또는 문헌사적 분류는 노트(M. Noth)의 신명기역사서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본문은 신명기역사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기도 하고, 가장 오래된 문헌층에서 남유다 멸망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왕들의 평가 본문과 비교하면, 므낫세 평가 본문에는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광범위한 죄 목록(3, 5-7ab α , 9, 10, 16절), 하나님 말씀(4, 7b β y, 8절), 심판예언(10-15절)의 다양한 글의 형식이 문헌사적으로 본문의 층을 나누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노트에 따르면 므낫세 평가 본문은 신명기사가가 전승 자료에 기초하여 기록한 요시야 본문(왕하 23:4 이하)과 신명기(신 18:10-11)에서 뽑아낸 것과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로 기록한 본문이다.³¹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내용과 형식에서 특별한 이 본문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므낫세 평가 본문 전체³² 또는 일부 ((7)8-15절)³³를 포로기 이전(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역사서에 첨가된 것으

31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Niemeyer, 1967), 85-86.

32 F. M. Cross,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85-286(2-15절); I.W. Provan,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145-147(2-18절).

33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641; R.E. Friedman, "From Egypt to Egypt: Dtr1 and Dtr2", B. Halpern/J.D. Levenson (ed.),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FS F.M. Cross)*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86; S.L. McKenzie, *The Trouble with Kings.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S 42; Leiden u.a.: Brill, 1991),

로 본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예언 등을 포로기의 신명기역사서에 추가된 것(7b-16절)으로 보기도 한다.³⁴

(1) 2절

므낫세의 부정적 평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가나안 땅 민족들과의 비교이다. 유다 왕들 가운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왕들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선조들³⁵이나 북이스라엘 왕들³⁶과 연결된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는 므낫세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비교 구

142-143(각주 5); E. Ben Zvi, "The Account of the Reign of Manasseh in II Reg 21,1-18 and the Redactional History of the Book of King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3 (1991), 366, 370, 373-374; M.A. O'Brie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227-234; R.D. Nelson,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65-69; M.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61; M. Gerhards, "Die Begnadigung Jojachins - Überlegungen zu 2.Kön.25,27-30 (mit einem Anhang zu den Nennungen Jojachins auf Zuteilungslisten aus Babylon)", *Biblische Notizen* 94 (1998), 58-59(각주 24); H.-J. Stipp, "Die Joschijanische Reform im Jeremiabuch. Mit einem Seitenblick auf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E. Gaß/H.-J. Stipp(ed.), „*Ich werde meinen Bund mit euch niemals brechen!*“ (Ri 2,1) (FS W. Groß) (HBS 62; Freiburg i.B. u.a.: Herder, 2011), 103-104.

34 A. Jepsen,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1953), 25; F. Blanco Wißmann, «Er tat das Rechte...», Beurteilungskriterien und Deuteronomismus in 1 Kön 12-2 Kön 25 (ATHANT 93;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8), 166-173(특히 171). W. Dietrich, *Prophez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31-34; G. H. Jones, *1 and 2 Kings, Vol. II, 1 Kings 17:1-2 Kings 25:30* (Grand Rapids u.a.: Eerdmans, 1984), 594(10-14절: 'DtrP'; 4, 7b-9, 15-16절: 'DtrN');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160-170, 421-422(6aBb, 7b-9, 16절: 'DtrN'; 3, 4, 10-15절: 'D'; G. Hentschel, *2 Könige* (NEB.AT 11; Würzburg: Echter-Verlag, 1985), 101-102(10-14절: 'DtrP'; 2b, 7b-9, 15절 추가 → 16절 추가 → 4, 6절 추가).

35 아비아(왕상 15:3), 아몬(왕하 21:20), 여호아하스(왕하 23:32), 여호야김(왕하 23:37), 여호야긴(왕하 24:9), 시드기야(왕하 24:19).

36 여호람(왕하 8:18), 아하시야(왕하 8:27), 아하스(왕하 16:3).

절은 고전적 문헌비평에서처럼 곧바로 첨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³⁷ 그러나 이 특별한 비교는 문맥에서 설명될 수 있다. 3-6a절에서 열거되는 죄는 부분적으로 아합과 비교되지만(3절)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산당 건축(3a절)과 제의적 또는 마술적 행위들(6a절)은 신명기 12장; 18장 9-11절에 의하면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모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나안 민족과의 비교를 므낫세의 부정적 평가와 통시적으로 분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2절의 비교는 3-6a절의 죄의 목록을 요약하여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4절과 6a절

4절과 6a절에 있는 동사 형태 *w^eqatal*은 구문론적 관점에서 주변 동사 형태들(*wayyiqtol*, *qatal*)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 동사 형태는 므낫세 본문에서 이곳에만 나오는데, 몇몇 학자들은 문맥에서 두드러지는 이 동사 형태에 근거하여 두 구절을 통시적으로 분리한다.³⁸ 이들에 따르면 이 동사 형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내러티브에서 *wayyiqtol*을 대신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사 형태는 고대 히브리어 내러티브에서 동사 형태 *yiqtol*처럼 사용될 수 있다. 곧 과거 시제 문맥에서 *w^eqatal*과 *yiqtol*은 반복되는 행위나 앞서 묘사된 과정이나 상황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³⁹ 따라서 4절과 6a절의

37 E. Würthwein,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440-441; M.A. O'Brien, 윗글, 228(각주 2), 232; E. Aurelius,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Enneateuch* (BZAW 31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ㄴ), 35; F. Blanco Wißmann, 윗글, 170.

38 I.W. Provan, 윗글, 86-87, 146; M.A. O'Brien, 윗글, 232-233; J. Gray, 윗글, 643(4절만).

39 E. Blum, "Das althebräische Verbalsystem - eine synchrone Analyse", O. Dyma/A. Michel(ed.), *Sprachliche Tiefe - Theologische Weite* (BThSt 91; Neukirchen-Vluyn:

*w^cqatal*은 각각 앞선 3b절과 5절의 천체 숭배와의 동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6a절에서는 반복적인(Iterativ) 므낫세의 행위를 표현한다.⁴⁰

4절을 통시적으로 분리하는 또 다른 근거로 5절에 대한 중복(Dublette)을 제시하기도 한다.⁴¹ 그러나 문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4절은 5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5절은 4절에서 언급된 제단의 위치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한다.⁴² 따라서 4절과 6a절을 구문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본문에서 통시적으로 분리할 근거가 없다.

(3) 6b-7절

2절의 부정적 평가 이후에 6b절에 또다시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Neukirchener Verlag, 2008), 91-142 = W. Oswald/K. Weingart(ed.), *Grundfragen der historischen Exegese. Methodologische, philologische und hermeneut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FAT 95; Tübingen: Mohr Siebeck, 2015. ㄴ), 178-183. 동사 형태 *w^cqatal*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상원, “히스기야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어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제39호 (2016년 10월), 44-46을 참고하라.

- 40 동사 형태 *w^cqatal*은 왕들의 평가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본문(왕하 18:4)과 므낫세 본문(왕하 21:4, 6)과 요시아 본문(왕하 23:4, 5, 8, 10, 12, 14, 15)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신명기사가가 이 동사 형태를 요시아 제의 개혁과 관련된 전승 자료에서 전해 받아 왕들의 평가 본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시아 제의 개혁 본문(왕하 23:4-15)에서 신명기사가에게 전승된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상원, 윗글 (2021), 176-178을 참고하라.
- 41 W. Dietrich, 윗글, 31; I.W. Provan, 윗글, 87, 146; H. Spieckermann, 윗글, 163-164; P.S.F. van Keulen, *Manasseh through the Eyes of the Deuteronomists* (OTS 38; Leiden u.a.: Brill, 1996), 161-162.
- 42 스멜릭(K.A.D. Smelik)은 5절을 ‘정보가 추가된 반복(repetition with an increase in information)으로 여긴다(K.A.D. Smelik, “The Portrayal of King Manasseh. A literary analysis of II Kings xxi and II Chronicles xxiii”, *Converting the Past.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and Moabite Historiography* (OTS 28; Leiden u.a.: Brill, 1992), 145. F. Stavrakopoulou, *King Manasseh and Child Sacrifice. Biblical Distortions of Historical Realities* (BZAW 338;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29도 참고. 4절과 5절을 동일한 저자의 것으로 보는 견해를 위해 P.S.F. van Keulen, 윗글, 97-98을 참고.

것이 두드러지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2절에 대한 중복(Dublette)으로 여기고 통시적으로 분리한다.⁴³ 그러나 위의 구조 파악에서 언급했듯이 6b절은 2절에 비해 더 강화된 부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강화된 평가의 근거가 이어서 열거된다.

그런데 7절에는 죄를 나열하는 문맥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학자들은 이러한 문체의 변화에 근거하여,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루살렘 선택이라는 모티브에 근거하여 7절을 통시적으로 분리한다.⁴⁴ 그러나 우선 하나님 말씀의 등장 자체가 문헌비평적 단서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복합적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의 말씀이 인용되거나 심부름꾼에 의해 전달되는 말이 있을 수 있다(이를테면 왕의 평가 본문 안에 있는 왕조신탁[Dynastieorakel]⁴⁵).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루살렘 선택 모티브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분열왕국 시대의 서술을 위한 신명기역사서의 구성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모티브는 왕국 분열에 대한 예언(왕상 11:13, 32, 36 [A]), 남유다 역사 서술의 시작(왕상 14:21 [B]), 남유다 역사 서술의 마지막 부분들(왕하 21:7 [B']; 23:27 [A'])에서 이중의 인클루시오(Inclusio)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7절은 좁은 맥락이나 넓은 맥락에서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 우선 7절의 '아세라 신상(הַאֲשֵׁרָה פֶּסֶל, 페셀 하아세라)'은 3절의 '아세라(הַאֲשֵׁרָה)'와 요시아가 제거한 '아세라(הַאֲשֵׁרָה)'(왕하 23:6)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3절에서의 아합과의 비교를 통해 아합이 세운 '아세라(הַאֲשֵׁרָה)'(왕상 16:33)도 아세라 신상이 분명해진다.

43 H. Spieckermann, 윗글, 166(각주 14); I.W. Provan, 윗글, 146.

44 W. Dietrich, 윗글, 31-34; H. Spieckermann, 윗글, 166-168, 421; E. Würthwein, 윗글, 440; E. Aurelius, 윗글 (2003. ㄴ), 60-65; F. Blanco Wißmann, 윗글, 168-172.

45 열왕기상 15:34-16:6; 열왕기하 10:28-31 등.

또한 7절은 6b절의 강화된 부정적 평가의 근거를 제시한다. 3절에서 므낫세는 아합을 따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세운 것 때문에 비난받는다. 그러나 므낫세는 아세라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움으로써 아합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아세라 제의는 7절의 하나님 말씀에서 명백해진다. 따라서 7절의 인용된 하나님 말씀이나 6b-7절은 문헌비평적으로 문맥에서 분리해 낼 이유가 없다.

(4) 8-9절

7절에 이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8절)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 반응이 고발된다(9절). 형식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인 7절과 8절 사이에는 단절이 없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면 8-9절에는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 먼저 비난의 대상이 므낫세(7절)에서 전체 이스라엘(8-9절)로 옮겨 간다. 그리고 9b절에 의하면 므낫세가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이 유다(11, 16절)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이다. 유다 왕에 대한 평가 본문에서,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전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에 대한 비난은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 나아가 7절과 8절 사이에는 주제의 변화가 발견된다. 7절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언급되는데, 8절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 순종에 따른 조건적 약속으로 더 이상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자면 8절은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백성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조건적 약속이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밝히려는 신명기역사서의 유다 왕에 대한 평가 본문에서 전체 이스라엘로의 비난 대상의 확장과 미래의 조건적 약속으로의 주제 변화는 8-9절

을 7절과 통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⁴⁶

(5) 10-15절

이 단락은 도입부(10절)와 심판예언(11-15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14절은 죄 고발(11절), 심판 선포(12aβ-14절),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לָכֵן(라켄/그러므로, 12aα절)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심판예언이다. 11절의 죄 고발에서는 3-7절에서 언급된 므낫세의 죄를 간추리고, 12aβ-14절에서는 재앙이 선포된다. 그런데 15절에 또다시 죄 고발이 나오는데, 이는 심판 예언의 체계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는 문맥에서 불필요하다. 게다가 8-9절에서처럼 비난 대상이 또다시 전체 이스라엘로 확장된다. 11절에 유다 역시 죄 고발의 대상으로 암시되어 있지만 주된 고발 대상은 므낫세이다. 15절은 ‘이스라엘’/‘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 아래 왕들과 백성에게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신명기 사가의 북이스라엘 역사 후기(왕하 17:7-23)를 따라 나중에 첨가한 듯하다. 나중의 저자는 15절을 통하여 명백하게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멸망의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한 듯하다.

10-14절은 문체의 차이, 열왕기의 왕조신탁과는 달리 왕국에 대한 멸망 예고(12aβ-14절), 후대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여기는 11절의 גִּלְוָלִים(길롤림/우상들)에 근거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통시적으로 분리되기도 한다.⁴⁷ 그러나 이 세 가지 근거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체적 차이가 곧바로 통시적 비통일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열왕기에는 이야기체 본문이 심판예언과 연결

46 J. Gray, 윗글, 641, 644; M.A. O'Brien, 윗글, 227, 233; S.L. McKenzie, 윗글, 126, 142-143; E. Ben Zvi, 윗글, 367-371; P.S.F. van Keulen, 윗글, 168-171.

47 W. Dietrich, 윗글; E. Würthwein, 윗글; J.H. Jones, 윗글; E. Aurelius, 윗글 (2003. ㄴ); F. Blanco Wißmann, 윗글 등.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를테면, 북이스라엘의 왕조신탁에서는 그 왕조에 속한 왕들의 평가에서 나열된 죄들이 왕조에 대한 재앙 선언의 근거로 언급된다(왕상 14:7 이하; 15:34 이하; 16:25 이하; 21:17 이하).

둘째, 열왕기의 왕조신탁에서는 해당되는 왕조의 멸망이 선포된다. 그런데 11-14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특별히 므낫세나 다윗 왕조가 아니라 유다 전체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왕국 역사의 차이와 나단 예언(삼하 7장)에서 선포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의 실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이스라엘은 군사 정변으로 인해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신탁에서는 당연히 해당 왕조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다. 반면에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다스렸다. 그런데 11-14절에서 다윗 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심판이 선포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이 약속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동일한 죄(산당 제의, 우상숭배)를 지었는데도 다윗 왕조의 통치가 계속된다(왕상 15:4; 왕하 8:19). 나아가 역사서는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있던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보도하면서 끝을 맺는다.

셋째, 11절의 גלולים은 신명기역사서의 왕정 시대 서술에서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 표현은 우상숭배 논쟁과 관련하여 주로 에스겔서에 나온다.⁴⁸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포로기의 독자들은 이 낱말과 함께 우상숭배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10-14절에서 이 낱말은 아사의 평가 본문(왕상 15:12-13)에서처럼 아세라 신앙으로 구체화되고(왕하 21:3, 7), 북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왕하

48 이 표현은 MT에서 48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서에 39번, 열왕기에 7번 나온다. H.D. Preuß, Art. גלולים,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Stuttgart u.a.: Kohlhammer, 1977), 1.

17:7-23)에서는 금송아지와 아세라 신상으로 구체화된다(12, 16절). 오히려 **ללויים**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유다 역사 서술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되면서 유다 역사 서술의 틀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 역사를 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6) 16절

16절은 므낫세의 사회적 범죄를 고발한다. 16절은 형식과 내용에서 므낫세의 죄를 열거하는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16절을 앞선 심판예언(10-14절)과 통시적으로 분리하는 견해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16절을 나중에 추가된 9절에 연결하고 10-15절을 이들보다 더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⁴⁹ 다른 한편으로는 8-15절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16절을 7절에 연결하기도 한다.⁵⁰ 이러한 견해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문헌적 응집성을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10-14절과 16절의 분리는 16b절을 연결점 없이 공중에 떠 있게 만든다. 16b절에 있는 ‘유다를 죄짓게 한 것 외에’는 11절 없이는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6절의 사회적 범죄는 7절의 제의적 죄와 함께 6b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므낫세의 더 많은 죄의 내용을 설명한다. 따라서 16절은 므낫세의 죄의 목록에서 통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3) 므낫세 평가 본문과 신명기역사서

지금까지의 문헌비평적 분석을 통해 열왕기하 21장 1-18절이 두

49 H. Spieckermann, *윗글*, 169, 421-422; E. Aurelius, *윗글* (2003. ㄴ), 64-65.

50 J. Gray, *윗글*, 641, 645; R.E. Friedman, *윗글*, 177, 186-187. 블랑코 비스만(F. Blanco Wisßmann)은 16절을 5절에 연결하여 읽는다(F. Blanco Wisßmann, *윗글*, 168-171).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친 본문임을 알 수 있다. 포로기의 신명기역사서에 속하는 본문은 1-7, 10-14, 16절로 이루어져 있고, 8-9, 15절은 서술 관점을 왕이나 분열된 각 왕국에서 전체 이스라엘로 확장시킨 다른 저자 의해 (아마도 여전히 포로기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로기의 신명기역사서에서 므낫세 평가 본문(1-7, 10-14, 16절)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왕들의 평가 본문들과 문헌적 연관 관계에 놓여 있다.

첫째, 므낫세 평가 본문은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들을 다시 세운 죄에 대한 고발(3a절)과 아합을 따라 행한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3b절)에 의해 히스기야 평가 본문(왕하 18:4)과 아합의 평가 본문(왕상 16:32-33)과 연결된다.

둘째, 므낫세의 죄 목록은 요시아의 제의 개혁 목록의 문헌적 전제가 되면서⁵¹ 동시에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요시아의 제의 개혁 목록(왕하 23:4-15)에는 므낫세가 저지르지 않았고 히스기야가 제거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개혁 조치로 언급되고 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의 산당들(23:13-14)과 예루살렘과 성전 구역에서 행하던 우상숭배(23:10-12) 철폐는 요시아의 제의 개혁이 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10-14절의 심판예언은 남유다 멸망의 원인을 설명한다. 이 심판예언의 실현이 열왕기하 23장 26절; 24장 3-4절에서 확인된다.

넷째, 남유다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는 므낫세 평가 본문은 신명기사가의 북이스라엘 역사 후기에 해당하는 열왕기하 17장 7-23절*(7b-8, 13-14, 19-20절 제외⁵²)과 비교될 수 있다. “이 가증한

51 산당 제의(왕하 21:3a ↔ 왕하 23:8a); 바알 제의(21:3b ↔ 23:4); 아세라 제의(21:3b_α, 7 ↔ 23:4, 6); 천체 숭배(21:3β-5 ↔ 23:4, 5, 12); 제의적 또는 마술적 범죄(21:6 ↔ 23:10).

52 이 구절들은 나중에 신명기역사서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21:11a)로 요약되는 므낫세 의 산당 제의와 온갖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거로도 제시된다(17:9-11[산당 제의]; 12, 15-17[우상숭배]). 또한 유다를 죄짓게 한 므낫세(21:11b)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17:21-22. 왕상 12:26-32도 참고)과 비교될 수 있다.

이처럼 신명기역사서의 므낫세 평가 본문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해석(왕하 17:7-23*)과 짝을 이루면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요시아의 제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5. 나가는 말

구약성서 주석에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구약성서의 많은 책들이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형성 과정을 거쳐 지금의 최종 본문 형태에 이르렀다. 둘째, 구약성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의 수신자를 전제하는 전달 텍스트로서 역사적 단계마다의 최종 본문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역사적 주석의 방법적 절차인 문헌비평이 본문을 통시적 관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 그에 따라 이전까지의 문헌비평은 본문에서 관찰되는 이질적이고 불일치하는 구성요소들을 통시적으로 분리하여 문헌층을 구분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는 최종 본문과 본문 저자의 의도가 간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전제는 문헌비평이 단지 이질적인 본문 구성요소의 통시적 비통일성을 확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의 동시적인 본문 내적 연관성 곧 공시적 응집성에 대해 주목하고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공시적 고찰은 본문의 맥락과 주제와 본문에 담긴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밝혀내는 주요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본문 안에서의 이질적 요소와 불일치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없다. 불일치하는 요소들은 통시적 접근을 통해 평가되고 본문을 문헌적 층위들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역사적 주석을 위한 문헌비평은 공시적이면서 동시에 통시적이어야 한다. 나아가 주석이 본문이 내포하는 본문 자체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문헌비평은 우선 공시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통시적 분석은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같은 본문 주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주석자가 의미 획득 과정에서 본문 저자의 의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참고문헌

-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102-128.
- 우택주, “구약성서해석을 위한 역사비평의 미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2004년 7월), 5-35.
- 이상원, “히스기야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히브리어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39호 (2016년 10월), 42-61.
- _____, “신명기사가에게 요시야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79집 (2021년 3월), 166-191.
- _____, “아모스서에서의 지진의 의미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94집 (2024년 12월), 177-203.
- _____, “아모스서에서의 전승과 해석: 아모스 5장 21-27절; 6장 1-7절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9권 1호 (2025년 2월), 1-24.
- 정석규, “왕하 21장의 구조 분석적 해석”, 「구약논단」 36집 (2010년 6월), 30-52.
-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1). 원제 S. Kreuzer u.a., *Proseminar I. Altes Testament. Ein Arbeitsbuch* (Stuttgart: Kohlhammer, 2005).

- Arneth, M., "Literarkritik der Bibel",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4. Aufl. (RGG⁴), Band 5 (Tübingen: Mohr Siebeck, 2002), 389-390.
- Aurelius, E., "Der Ursprung des ersten Gebots",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100 (2003. 1), 1-21.
- _____, *Zukunft jenseits des Gerichts.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 zum Enneateuch* (BZAW 31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1.).
- Ben Zvi, E., "The Account of the Reign of Manasseh in II Reg 21,1-18 and the Redactional History of the Book of King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3 (1991), 355-374.
- Blanco Wißmann, F., «*Er tat das Rechte...*». *Beurteilungskriterien und Deuteronomismus in 1 Kön 12-2 Kön 25* (ATHANT 93;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8).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_____,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 _____,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M. Vervenne/J. Lust(ed.),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Literature* (FS C.H.W. Brekelmans) (BETL 132;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81-212 = W. Oswald(ed.), *Textgestalt und Komposition. Exegetische Beiträge zu Tora und Vordere Propheten* (Tübingen: Mohr Siebeck, 2010), 249-280.
- _____, "Das exilische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H.-J. Stipp(ed.),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ÖBS 39; Frankfurt a.M. u.a.: Peter Lang, 2011), 269-295.
- _____, "Von Sinn und Nutzen der Kategorie „Synchronie“ in der Exegese", W. Dietrich(ed.),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OBS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6-30 = W. Oswald/K. Weingart(ed.), *Grundfragen der historischen Exegese. Methodologische, philologische und hermeneut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FAT 95; Tübingen: Mohr Siebeck, 2015. 1), 55-68.
- _____, "Das althebräische Verbalsystem - eine synchrone Analyse", O. Dyma/A. Michel(ed.), *Sprachliche Tiefe - Theologische Weite* (BThSt 9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91-142 = W. Oswald/K. Weingart(ed.), *Grundfragen der historischen Exegese. Methodologische, philologische und hermeneut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FAT 95; Tübingen: Mohr

- Siebeck, 2015. ㄴ), 178-183.
- _____, “Von der Notwendigkeit einer disziplinären Selbstverständigung in d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J.J. Krause/K. Weingart (ed.), *Exegetik des Alten Testaments. Bausteine für eine Theorie der Exegese* (FAT 2/127; Tübingen: Mohr Siebeck, 2021), 239-273.
- Cross, F.M., “The Themes of the Book of Kings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74-289.
- Dietrich, W., *Prophezie und Geschicht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FRLANT 10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2).
- Friedman, R.E., “From Egypt to Egypt: Dtr1 and Dtr2”, B. Halpern/J.D. Levenson (ed.),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FS F.M. Cross)*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167-192.
- Gerhards, M., “Die Begnadigung Jojachins - Überlegungen zu 2.Kön.25,27-30 (mit einem Anhang zu den Nennungen Jojachins auf Zuteilungslisten aus Babylon)”, *Biblische Notizen* 94 (1998), 52-67.
- Gray, J.,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 Hardmeier, C., *Prophezie im Streit vor dem Untergang Judas. Erzählkommunikative Studien zur Entstehungssituation der Jesaja- und Jeremiaerzählungen in II Reg 18-20 und Jer 37-40* (BZAW 187; Berlin u.a.: Walter de Gruyter, 1990).
- Hentschel, G., *2 Könige* (NEB.AT 11; Würzburg: Echter-Verlag, 1985).
- Jepsen, A.,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1953).
- Jones, G.H., *1 and 2 Kings, Vol. II, 1 Kings 17:1-2 Kings 25:30* (Grand Rapids u.a.: Eerdmans, 1984).
- Kratz, R.G., *Die Komposition der erzählend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rundwissen der Bibelkritik* (UTB 2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 McKenzie, S.L., *The Trouble with Kings.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King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VT.S 42; Leiden u.a.: Brill, 1991).
- Nelson, R.D.,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 Noth, M., *Überlieferungsgeschichte des Pentateuch* (Stuttgart: Kohlhammer, 1948).
- _____,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Niemeyer, 1967).

- O'Brien, M.A.,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Preuß, H.D., Art. גְּלוּלִים,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Stuttgart u.a.; Kohlhammer, 1977), 1-5.
- Provan, I.W., *Hezekiah and the Books of King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BZAW 17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Richter, W., *Exegese als Literaturwissenschaft. Entwurf einer alttestamentlichen Literaturtheorie und Method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 Schmid, K., "Hatte Wellhausen Recht? Das Problem der literarhistorischen Anfänge des Deuteronomismus in den Königsbüchern", M. Witte u.a.(ed.), *Die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e. Redak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Perspektiven zur "Deuteronomismus"-Diskussion in Tora und Vorderen Prophet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19-43.
- Schmitt, H.C.,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 Smelik, K.A.D., "The Portrayal of King Manasseh. A literary analysis of II Kings xxi and II Chronicles xxiii", *Converting the Past. Studies in Ancient Israelite and Moabite Historiography* (OTS 28; Leiden u.a.: Brill, 1992), 129-189.
- Spieckermann, H.,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Stavrakopoulou, F., *King Manasseh and Child Sacrifice. Biblical Distortions of Historical Realities* (BZAW 338;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Steck, O.H.,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¹⁴1999[1971]).
- Stipp, H.-J., "Die joschijanische Reform im Jeremiabuch. Mit einem Seitenblick auf das deuteronomistische Geschichtswerk", E. Gaß/H.-J. Stipp(ed.), „*Ich werde meinen Bund mit euch niemals brechen!*“ (Ri 2,1) (FS W. Groß) (HBS 62; Freiburg i.B. u.a.: Herder, 2011), 101-129.
- Sweeney, M.A.,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Oxford Univ. Press, 2001).
- van Keulen, P.S.F., *Manasseh through the Eyes of the Deuteronomists* (OTS 38; Leiden u.a.: Brill, 1996).

Würthwein, E.,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검색어

문헌비평, 공시적 주석, 통시적 주석, 응집성, 통일성, 므낫세의 죄

[ABSTRACT]

The Sin of Manasseh: A Literary-Critical Reading of 2 Kings 21:1-18

Sang-Won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literary criticism, one of the significant methodological tools in the historical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and to illustrate its appli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2 Kings 21:1-18. Literary criticism proceeds from the premise that the Old Testament is composed of traditional texts transmitted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t further assumes that the present final form of the text contains traces indicating that the earliest form was refined and expanded in the course of its transmission. Literary criticism seeks to identify these traces, trace them back to recover the earliest form of the text, and distinguish it from later additions. It then situates these additions within their historical context, interprets the final form of the text at each stage, and elucidates the theological shif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In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elements of discrepancy observable in a text — such as contradictions, repetitions, and tensions — were regarded as signs of diachronic disunity and thus served as the basis for diachronic divisions of the text. More recently, however, scholars have raised the possibility that such discrepancies may stem from the author's tacit acquiescence or deliberate intent, thereby problemat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cohesion and textual disunity.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www.kci.go.kr

to how synchronic considerations and diachronic analysis are to be employed in literary criticism.

This study, based on the intercorrective relationship between synchronic examination and diachronic analysis, analyzes 2 Kings 21:1-18 and demonstrates that, contrary to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the majority of the passage (with the exception of vv. 8-9 and v. 15) was composed by a Deuteronomistic historian during the exilic period. It further argues that, with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he Manasseh narrative serve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downfall of the kingdom of Judah.

key words

Literarkritik, synchronic exegesis, diachronic exegesis, Kohärenz, Einheitlichkeit, the sin of Manasseh

투고일: 2025년 08월 15일

심사일: 2025년 0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